

목양 칼럼

알렉산더와 예수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4세기경 발칸 반도의 북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 33살에 죽기까지 정복사업에 힘 쓴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칸반도 전역뿐 아니라 서쪽으로 아프리카의 이집트, 동쪽으로 강대국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 인도 북부까지 점령했습니다. 실로 그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점령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한 곳에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했습니다. 이번에 발칸 반도를 다녀오면서 그의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둘 다 33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삶은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정복을 하고 돌아오다 바벨론에서 병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예수님은 수없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나라들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음이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알렉산더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의 신하들은 유언을 남길 것을 부탁했습니다. 좀처럼 유언을 말하지 않던 알렉산더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 예배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41호 주후 2024년 10월 13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우영주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249장		
기도	박병규집사	김근태장로	지재홍장로
성경봉독	히(Heb.) 12:1-13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완주자가 되라 김중훈목사		
찬송	354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1선교회 헌신예배) 10월 16일 오후 8:30

- 기도: 구속자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최길옥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태근A집사
- 2부: 윤희주장로
- 3부: 정수영장로

10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홍재익집사
- 3부: 정제인집사, 한지형집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일예배:** 1선교회 헌신예배
- **10월 정기당회:** 오늘 식사 후, 사랑방
- **물댄동산 목장모임 및 월례회:** 오늘 식사 후, 본당
- **10월 목장예배:** 10/18(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 10/16 수요일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 모임 및 교안배부
- **중고등부 세례 및 입교 교육:** 10월 20일 (주일) 시작, 4주간 매주 오후 12시 30분 - 1시 15분
- **성인세례신청:**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부목사실로 신청바랍니다
- **강단꽃 장식:** 이찬용장로&김혜중권사 (결혼 기념)
사랑의 식탁: 김용호장로&김송기전도사 (결혼 기념)
- **감사의 떡 대접:** 김상진집사&김신애권사 (결혼 감사)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한대영장로 다음주: 정성원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3마을 다음주: 5마을
- **10월 헌금위원**
1부예배: 전미경권사 현정원권사 2부예배: 이정은권사 한진영권사 구본원권사 이상희집사
3부예배: 김경미권사 강희선집사 박미선집사 박정혜집사 양순희집사 이유정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09:30 am Services. Zoom QR Code:



שבבולעט(Shibboleth) (삿 12:1-7)

영국 현대미술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미술관에 설치된 167m 길이의 크랙은 콜롬비아 출신 도리스 살세도 (DORIS SALCEDO)의 “שבבולעט(SHIBBOLETH)”이라는 작품으로,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민자와 난민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שבבולעט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외부인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1. 본문 줄거리
사사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사이에 내전이 생겨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שבבולעט이라는 단어를 잘 못하는 발음의 약점을 이용해 살육한 결과, 42000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죽이기 위해 발음의 약점, 차이를 이용해 6000명의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שבבולעט이라는 단어는 차이를 이용해 대적을 죽이는 도구를 상징하는 단어로 지금까지 알려졌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아주 작은 차이나 아주 작은 약점을 이용해 벽을 만들고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 곳곳에 새겨진 שבבולעט의 흔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나 약점은 지극히 작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데도 과장하거나 부각시켜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2. 내전의 원인과 결과
입다는 성장과정에서 엄청난 열등감과 상처를 갖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던 사람인데,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 암몬자손을 무찌르고 지도자가 됩니다. 한편, 지나친 우월감으로 늘 갈등을 초래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 행패를 부리자 두 세력 간에 내전이 시작됩니다. 열등감은 잘 다루면 겸손이 되고 우월감은 자신감으로 잘 절제되면 귀한 자산이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자기연민, 자기사랑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다뤘을 때, 갈등, 폭력,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사사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평안이 계속되지만 입다의 사후에는 평화가 보장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영적전쟁을 치러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부분열과 갈등에 직면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3. 열등감, 우월감의 극복방법
1)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습3:17).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롬5:8), 우리는 하나님의 것(소유)이며 물,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사 43장), 사랑받는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믿을 때 열등감도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2) 축복합시다.
유통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늘 남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비판의 소리를 읊기만 그것들이 고스란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축복하고 늘 축복을 유통하면 내게는 축복이 남습니다. 성경적으로 축복도 저주도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각자가 상처와 열등감, 우월감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며, 서로 서로를 축복할 때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 10/20(주일) 사랑선교회 목장모임 및 월례회, 3부예배 후 본당 제직회, 오후 2시 본당
- 10/27(주일) 유치/유년부 Holy-Win Day
- 11/24(주일) 추수감사 마을 찬양제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